교회의 무엇이 변하고 무엇이 불변하는 것일까?

2023 평등세상 여름 포럼

2023.08.04. 15:00-17:00

평등세상 가족구성권 포럼

일시 2023년 8월 4일(금) 오후 3~5시 (온라인 동시중계 예정)
장소 새길기독사회문화원(서울시 중구 통일로 114 바비엥-2, 지하 1층)
대상 평등세상 소속 개인, 교회, 단체 (이 포럼은 평등세상 내부 행사입니다)

발제1 가족구성권 3법의 이해 - 이호림(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혼인평등연대)
발제2 가족구성권 3법의 인권적 의의와 기독교 신학적 쟁점 - 김혜령(이화여대)
발제3 가톨릭 국가에서의 가족구성권: 아일랜드의 사례를 중심으로 - 정다빈(에수회인권연대연구센터)
토론 오수경(청어람ARMC) | 홍다은(무지개신학교) | 손주환(느헤미야교회협의회)

차별과 혐오없는 평등 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네트워크

가족구성권the right to build families이란?

원하는 사람과 파트너로 살고 아이를 만들거나 입양하여 기를 권리

왜 가족구성권인가?

새로운 형태의 '가족'

“새롭고 다양한 가족형태가 출현하고 그 비중이 날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 법 제도는 여전히 기존의 전통적 가족 개념을 근거로 하고 있어 실재하는 다양한 생활공동체가 … 오히려 차별을 받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다양한 가족구성권 보장 위한 정책 권고(2022년 4월 13일)

“최근 당면한 큰 도전 중의 하나가 세속화된 사회가 수세기, 심지어 천년이나 지속되어온 결혼과 가족에 대한 하느님의 계획을 수용한 법률을 바꾸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윌리엄 레바다 추기경, ‘가톨릭 교리에서의 가족’ (2006. 7. 7.)

RELIGION

Congregations leave United Methodist Church over defiance of LGBTQ bans

July 25, 2023 · 5:00 AM ET
Heard on Morning Edition

Jason DeRose

6-Minute Listen + PLAYLIST

교회와 세속사회

2023 평등세상 여름 포럼

2023.08.04. 15:00-17:00

평등세상 가족구성권 포럼

일시 2023년 8월 4일(금) 오후 3~5시 (온라인 동시중계 예정)
장소 새길기독사회문화원(서울시 중구 통일로 114 바비엥-2, 지하 1층)
대상 평등세상 소속 개인, 교회, 단체 (이 포럼은 평등세상 내부 행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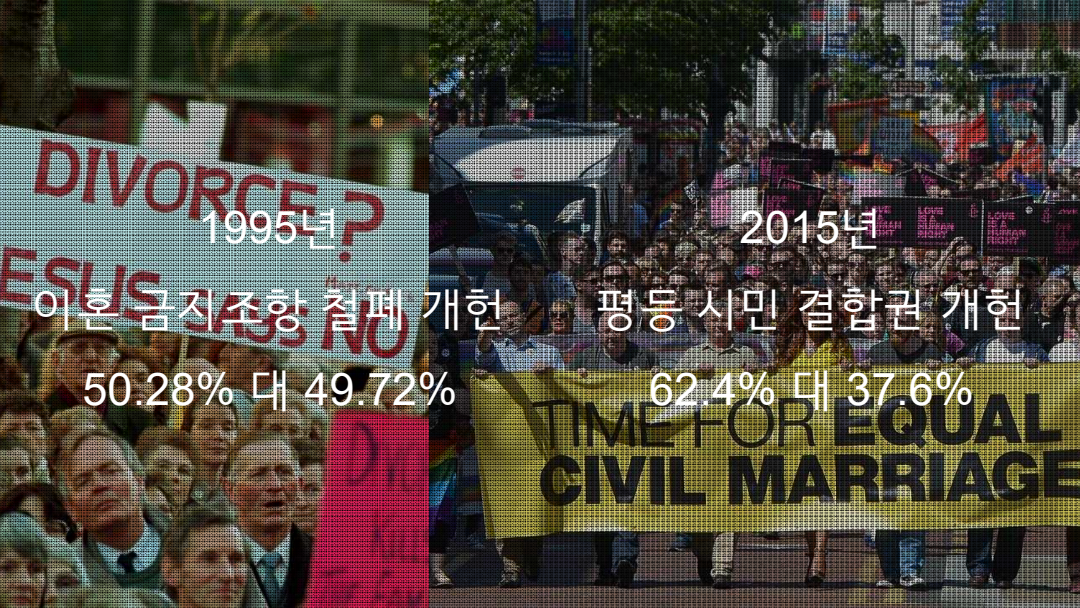
발제1 가족구성권 3법의 이해 - 이호림(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혼인평등연대)
발제2 가족구성권 3법의 인권적 의의와 기독교 신학적 쟁점 - 김세형(이화여대)
발제3 가톨릭 국가에서의 가족구성권: 아일랜드의 사례를 중심으로 - 정다빈(에수회인권연대연구센터)
토론 오수경(청어람ARMC) | 홍다은(무지개신학교) | 손주환(느헤미야교회협의회)

차별과 혐오없는 평등 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네트워크

“가톨릭 국가에서의 가족구성권 사례 연구”

정다빈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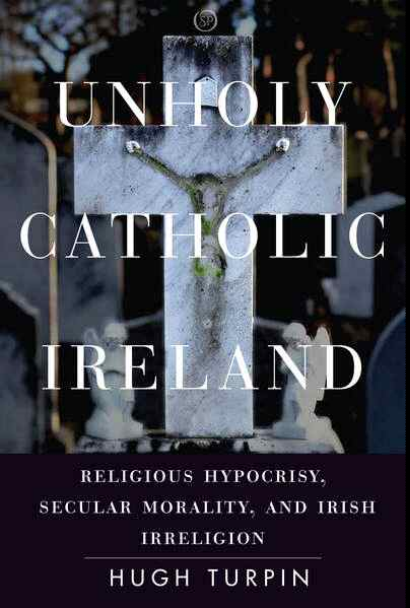
2015년 국민투표를 통해 동성 결혼을 도입한 최초의 국가
아일랜드


DIVORCE?
1995년
이혼금지조항 철폐 개헌
50.28% 대 49.72%
2015년
평등 시민 결합권 개헌
62.4% 대 37.6%
TIME FOR EQUAL
CIVIL MARRIAGE

“이것은 계속 진행되어 온 사회 혁명이며 교회는 그동안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다. 결혼의 정의를 바꾸지 않고도 게이와 레즈비언 남녀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다.”

Diamuid Martin 대주교(더블린)

2015년의 아일랜드가 1995년의 아일랜드와 달랐던 이유



교회는

성의 문제를

말할 자격이 있는가?

“성추문으로 인하여 아일랜드 가톨릭의 권위가 추락했다 하더라도 대주교가 보인 태도는 권위가 맨틀을 뚫어버린 한국 개신교의 목사들이 보이는 완고함과 대조를 이루어 부럽기조차 하였다.”

“아일랜드의 사례는 매우 흥미롭다. 우리도 더 망해야 이렇게 변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교회가 성도들을 가르쳐야 한다고 하지만 과연 그럴까? 아일랜드에서 보게 되는 것은 교회가 하나의 문화이자 가치가 되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과연 신앙이 우리의 문화이자 가치가 되었을까?”

청어람 책읽기
SUMMER

세속성자라는 말이 안고 있는
세상과 신앙 사이의 모순과 긴장을
끌어안기 위해서는 나를 넘어서는 성경읽기,
세상을 끌어안는 성경읽기가 필요합니다.
세속성자 책읽기 를 통해 함께 모여 책을 읽고
이야기 나누며 실마리를 찾아보려 합니다.

- 교재 : <나를 넘어서는 성경읽기>(성서유니온)
- 튜터 : 박현철 연구원
- 진행 : 매주 정해진 분량을 합독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 일시 : 2017.7.12~8.16 (수 / 5주) 저녁 7:30 (8.2 휴강)
- 장소 : 신촌 청어람 세미나실

- 참 가 비 : 30,000원 (청어람 후원자 / 학생 20,000원)
- 참가신청 : 온라인 신청 후 참가비 송금
- 송금계좌 : 기업은행 148-073630-01-011
  (청어람아카데미)

청어람ARMC
www.ichungeoram.com
02-319-5600 (iam@ichungeoram.com)

2015년 아일랜드가 우리에게 던지는 화두

권위의 문제

말할 자격

말의 무게

말의 진정성

잠시 쉬어가는 시간

권위의 문제

말할 자격

말의 무게

말의 진정성

가톨릭 교회의 아름다움

이 아름다움은 어디에서 오는가?

수많은 시간의 나이테

간절한 마음의 나이테

거룩함으로 향하는 마음

그리고 전승

전승 traditio

잇다, 건네주다, 손을 내밀어 주다

즉 공동체와 세대를 통하여 물려받은 유산

우리가 간직해야 할 것은

물려받은 메시지 보다는 정신이다.

예컨대 고해성사의 경우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할 것은

비례의 공식이 아니라 위로와 치유의 시간이라는 것

우리가 귀하게 여기야 할 것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징표들

2005년의 충격과 낙관주의

2015년의 충격

코로나 전후의 위기의식

신자들의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님

교회와 공동체에 활기가 있는가?

정리

-종교와 정치의 구분은 어찌보면 근대적인 현상이다.

-오히려 고대사회에는 이러한 구분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종교가 가치와 윤리성을 이야기하는 이상 현실 참여는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정리

-본질적인 것은 어떤 가치와 메시지를 나눌 것인가와 이들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이다.

-이는 우리의 한결같은 숙제라고 할 수 있다.